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여부 떠나 원전으로부터 독립된 경제체제 갖춰야

경북신문
판권인터뷰

장시원 울진군의회의장

지역 발전·군민의 삶 개선에 앞장
의원 의정활동 원활한 수행 뒷받침
존경·신뢰 받는 의회상구축에 최선
의정활동비 동결이전 없이 만장일치
지역경제 어려움·군민 정서 감안
당연한 결정... 칭찬 받을 일 아나
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문제 관련
정부가 울진군에 대한제시 선행 필요
지역경제의 원전 의존도 탈피해야
가장 절실한 사업은 '교통망 연결'
영덕-울진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울진읍-금강송면 36호선 국비 확보
향후 관광산업 활성화 위해 필수적

▲ 전반기 의장으로서 6개월이 접어들었는데 현재 소감은?

= 먼저 늘 변함없이 성원해주시고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군민들께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 인사 드립니다. 한 번의 무소속 출마 낙선 후, 세 번 연속 무소속 당선을 시켜주신 군민들의 그 마음을 잊지 않고 늘 간직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은 하지만 지나고 보면 아쉬운 점이 무척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장으로서 6개월을 되돌아 보면 역시 똑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거울 삼아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정진해나가는 의장이 되도록 제 자신을 더욱 채찍질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는 의장, 욕심부리지 않고 자만하지 않는 의장이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군의장으로서 2년간의 군의회 활동계획은 진행이 잘되고 있는지?

= 의장이 되고나니 평의원 때와는 다른 무게감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무엇보다도 의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 의장이 되고 나서 몇 가지 저와 의 다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욕먹는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울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는 일이라면 욕먹는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고, 둘째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과 군정질문을 많이 하여서 군 집행부에는 견제와 비전 제시, 그리고 군민들에게 의회의 제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의원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좀 더 깨끗하고 군민들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의회상을 만들어가자는 것입니다.

위의 다짐들을 늘 기억하면서 의정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심정으로 노력하고 있기에 군민들도 잘 지켜봐주시고 끊임없는 재직질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비 동결은 어떤 방향에서 이뤄졌는가? 15년간 동결이다.

= 물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원 모두 이견 없이 만장일치로 의정비 동결을 결정하게 된 것은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군민들의

정서를 감안해서 의회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다짐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의 평가는 의정비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군민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비 동결은 특별히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봅니다.

▲ 정부의 한울 3·4호기 건설중단 결정에 울진군민 한사람으로서의 소회는?

= 먼저 원전하면, 수십 년 동안 군민간의 갈등과 반목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어서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높은 것도 현실입니다. 원전반대를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원전건설을 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하는 현재의 모습이 어색하기도 합니다.

현재 신한울 3·4호기가 건설될 것으로 믿고 전제산을 투자해서 건물도 짓고 사업계획을 세운 군민들 중에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원전건설 촉구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을 원전반대를 떠나서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국가에너지 정책에 기여해온 울진군에 정부에서 뭔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집회를 하면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먼저 울진군에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들의 정서를 어루만지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 기회에 원전에 의한 지역경제 의존도를 탈피해야 합니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여부를 떠나서 울진군이 원전으로부터 독립된 경제체제를 갖추는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후손들은 정말 어려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울진군에서 국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중에 가장 절실했던 사업을 꼽는다면?

=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사업은 영덕-울진 동해중부선 철도건설 사업비와 울진읍-금강송면 36호선 사업비의 확보, 즉 교통망 연결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필요성이 있었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말도 안되는 구실로 미뤄져서 이제야 결실을 맺어가는 사업입니다. 울진군은 앞으로 관광을 활성화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통망 확충은 더 이상 늦어지면 안될 필수 사업입니다.

그리고 영양-평해간 국도 개량 87억원, 매



화-은정 60호선 국지도 건설 5억원, 국립해양 과학교육관 건립 230억원, 죽변항 이용고도화 사업 56억원, 산포지구 연안정부 67억원, 울진군립추모원 조성 27억원, 울진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69억원 등도 모두 중요한 사업입니다.

모든 사업들이 정해진 기한안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라도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5만여 군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 의회는 군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마시면서 자라는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군민의 신뢰와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존재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욕심내지 않는 의회, 자만하지 않는 양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호환 기자